

시각예술자료 아카이빙을 위한 수집정책 연구

- 국립현대미술관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llection Policy for Archiving Visual Arts Materials: Focusing on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김수진 (Sujin Kim)*

김순희 (Soonhee Kim)**

< 목 차 >

I. 서론	IV. 수집정책 사례 분석
II. 시각예술자료 개념 및 수집정책	V. 국립현대미술관 시각예술자료 수집정책 수립 방안
III. 국립현대미술관 시각예술자료 수집 현황 및 문제점 분석	VI. 결론

요약: 과거부터 현재까지 소장품 수집·관리는 미술관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로 미술관 업무는 자료보다는 작품에 치중되어 왔다. 그로 인해 시각예술자료는 그 중요성이 다소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으며, 예산과 공간 부족 등의 지속적인 문제로 인해 자료의 수집과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시각예술자료의 유형과 출처 및 유통방식 등에 따른 특수한 성격 때문에 수집에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방안이 수집정책의 수립이다. 하지만 시각예술자료를 수집하는 국내기관 대부분이 수집정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내의 대표적인 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의 시각예술자료 수집 현황을 살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후, 시각예술자료 수집 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의 정비와 수집정책 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시각예술자료, 미술자료, 미술기록, 아카이빙, 수집정책

ABSTRACT: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collecting and managing collections have been one of the main functions of art museums. Museum work has focused on artworks rather than visual arts materials. Consequently, the importance of visual arts materials has tended to be undervalued, and due to persistent problems such as a lack of budget and space, the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these materials have not been easy. Furthermore, the unique nature of visual arts materials in terms of their types, sources, and distribution systems poses challenges for collecting them. Establishing a collection policy is the most fundamental and essential approach to addressing these difficulties. However, most domestic institutions collecting visual arts materials operate without a collection policy.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is situation by examining the current state of collecting visual arts materials 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a prominent art museum in South Korea, to identify problems. It then analyzes overseas cases to draw implication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measures to improve current regulations and establish a collection policy for enhancing the collection of visual arts materials.

KEYWORDS: Visual Arts Materials, Art Materials, Art Archives, Archiving, Collection Development

*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학과 기록관리학전공 석사과정

(dkssudkim4@naver.com / ISNI 0000 0005 1666 532X) (제1저자)

**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siva@cnu.ac.kr / ISNI 0000 0000 3696 9180) (교신저자)

• 논문접수: 2024년 5월 23일 • 최초심사: 2024년 6월 3일 • 게재확정: 2024년 6월 10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5(2), 159-187, 2024. <http://dx.doi.org/10.16981/kliss.55.2.202406.159>

* Copyright © 2024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I. 서론

시각예술자료¹⁾를 수집하는 기관은 미술관, 도서관, 기록관 등 다양하며, 각 기관은 자신들이 가진 설립목적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료를 선별하고 고유한 컬렉션을 구축한다. 그런데 시각예술자료는 다양한 유형과 출처 및 유통방식 등 각각의 특수성 때문에 체계적으로 수집되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각예술자료를 수집하는 기관은 명확한 수집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집전략을 실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기관은 수집정책이 부재한 상태이며, 협력체계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 기관이 무엇을 수집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각 기관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중복 또는 겹쳐지는 등 체계적이지 않거나 수많은 자료가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사라지기도 한다.

시각예술자료와 관련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미술관자료실 또는 아카이브의 자료관리나 실태, 운영에 관한 연구(김기현, 2000; 김달진, 2008; 2009; 김인혜, 2012; 김철호, 2007; 정명주, 2006; 정혜린, 2009; 정혜린, 김익한, 2009)와 활성화 또는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김달진, 1999; 맹홍균, 김연희, 2018; 서수옥, 2006; 염효경, 2014) 등이 대부분이다. 수집과 관련된 연구에는 미술기록의 수집정책(안)을 제시한 연구(김민수, 2011), 국내 미술아카이브 수집 실태를 분석하고 제안한 연구(김달진, 2012),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의 개관 준비로 수행했던 정보자료관 구축전략에 관한 연구(명지대학교 디지털아카이빙연구소, 2012a; 2012b), 국립현대미술관을 중심으로 미술관 기관아카이브 기록물 수집과 정리 현황을 분석한 연구(이호진, 2018) 등이 있으나, 연구 범위가 시각예술기록에 국한되거나 실제 수집 업무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표 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은 국내 최초로 '미술자료실'을 개소하여 시각예술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나(국립현대미술관, 1999, 13; 유순남, 1996, 7), 도서관자료와 기록에 적용되는 현행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자료 관리 규정』이 다양한 시각예술자료를 수집, 관리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 시각예술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와 사례 분석을 통해 시각예술자료의 개념과 수집정책을 분석하여 국립현대미술관의 역할에 맞는 수집정책 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시각예술자료 개념 및 수집정책

1. 시각예술자료의 정의 및 특성

시각예술자료에 대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4호는 '미술관자료'로 명시하고 "미술

1) 시각예술자료란 본 연구의 2장의 1에서 정의한 '작품을 제외한 시각예술분야의 정보를 담고 있는 모든 유·무형의 객체'를 뜻한다.

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라 정의하고 있으며, 학술적으로는 주제 분야를 의미하는 미술, 시각예술, 조형예술과 대상을 의미하는 자료, 정보, 자원, 기록 등이 결합하여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용어는 각 개념이 포괄하고자 하는 범주에 따라 협의와 광의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협의로 보는 시각은 다시 법률적 용어에 대한 것과 학술적 용어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진다. 법률적 용어에 대한 협의적 관점은 미술관자료가 미술작품 자체만을 의미한다는 견해이고(국립현대미술관, 1999; 정연주, 2003, 4), 학술적 용어에 대한 협의적 관점은 자료의 범위에 작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김철효, 2007, 23; 명지대학교 디지털아카이빙연구소, 2012a, 3; 박상애, 2014, 19; 양소현, 2018, 11-12; 이정민, 1996, 20; 이지은, 김지현, 2015, 56; 정명주, 2006, 12; 황진현, 2012, 13). 광의로 보는 관점은 자료의 범주에 작품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다(노문자, 1998, 221; 이경수, 2004, 7; 이현정, 1995, 4; 정혜린, 김익한, 2009, 158; 황동열, 1992, 9).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술관이 작품을 수집하는 목적과 도서관 및 아카이브가 도서관자료와 기록을 수집하는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점, 본 연구의 대상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시각예술자료를 도서관자료와 기록으로 국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각예술자료’를 ‘작품을 제외한 시각예술분야의 정보를 담고 있는 모든 유·무형의 객체’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각예술자료는 몇 가지 특성²⁾이 있다. 첫째, 형태적 측면에서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김용범, 1992), 비도서자료의 비중이 높다(이정민, 1996, 13). 둘째, 출판의 측면에서 일반도서에 비해 높은 제작비가 소요되고, 자비출판의 관행이 있으며,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이규상, 2001, 116). 셋째, 유통방식이 중·대형 이상의 서점과 직거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이규상, 2001, 116). 넷째, 전시 관련 자료는 전시장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한정된 기간 동안에만 배포되고, 초판이 소진되면 재인쇄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노문자, 1998, 236; Lampens, De Pourcq, & Rogiest, 2008, 15). 다섯째, 시각예술분야는 회고적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Gakhar, 1993, 4), 절판된 경우 가격이 높은 중고 자료라도 소급적 수집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Lampens, De Pourcq, & Rogiest, 2008, 15). 이와 같은 시각예술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집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수집정책의 필요성

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도서관 등에서 수집정책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였는데(Pistorius, 1984, 16), 이 시기에 시각예술자료를 수집하는 기관에 대한 관심과 연구도 활발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1970년대를 전후로 Art Libraries Society of the United Kingdom and Ireland와 Art Libraries Society of North America 등 시각예술자료 수집기관 관련 협회가 설립되었고, 시각예술

2) 김용범(1992)은 ‘문화예술자료’의 특성으로, 이규상(2001)은 ‘미술·사진 등 예술서’의 특성으로 설명하였다.

자료의 수집정책, 컬렉션 개발 또는 현안에 관한 연구(Art Libraries Society of North America, 1984; Behrndt, 1981; Dole, 1983; Pistorius, 1984; Schimansky, 1981) 등이 발표되었다. 특히 Schimansky(1981, 35)는 미술관에 소속된 도서관은 수집정책을 수립하고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였고, Koot(2001, 38)은 미술관 소속 도서관과 같이 이용가능한 자료의 범위가 넓은 곳에서는 수집정책이 필수적이라 하였다. 이들 외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며 수집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하였는데, 이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컬렉션, 운영, 예산 측면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컬렉션 측면에서 수집정책은 수집 목표에 초점을 맞춰 보다 체계적인 자료 선택의 기준이 되므로, 일관성 있는 양질의 컬렉션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Allen, 1996, 13; Johnson, 1994, 4; Lampens, De Pourcq, & Rogiest, 2008, 13; Pistorius, 1984, 16). 또한 컬렉션 평가 시에도 현재 컬렉션의 상태, 강점과 약점을 분석할 수 있으며, 컬렉션 강화를 위한 목표를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Canadian Centre for the Visual Arts, 1997, 7; Johnson, 1994, 3-4; Koot, 2001, 38; Pistorius, 1984, 16). 그 결과 미래의 수집 수준을 결정하고 해당 수준에 도달했는지 성공 여부를 측정하는 척도로 적용 가능하다(Johnson, 1994, 3).

운영 측면에서 수집정책은 기관의 정체성을 알리고 기관의 기능에 대한 이해와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으며(Allen, 1996, 13; Johnson, 1994, 4-5; Pistorius, 1984, 16; Schimansky, 1981, 35), 다른 조직과의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Lampens, De Pourcq, & Rogiest, 2008, 13). 또한 검열, 지적 자유 침해, 소장자료에 대한 불만 등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기관을 보호하고, 자료 수집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며, 책임 분산을 위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Johnson, 1994, 4; Pistorius, 1984, 16).

예산 측면에서 수집정책은 기존의 예산을 보호하고, 요청한 예산의 근거가 되며(Allen, 1996, 13; Johnson, 1994, 4-5; Pistorius, 1984, 16), 예산 증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Johnson, 1994, 4; Lampens, De Pourcq, & Rogiest, 2008, 13).

이와 같이 수집정책은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일관성 있는 양질의 컬렉션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기관의 정체성과 기능에 대한 이해와 보호, 자료 수집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가 된다.

3. 수집정책의 구성요소

수집정책은 수집하는 기관의 지위, 성격에 따라 수집 대상 및 방법 등이 달라지므로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요소를 결정해야 한다.

Schimansky(1981, 36-45)는 미술관 소속 도서관이 수집정책을 수립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도서관의 목표, 도서관 역할, 수집 기능, 수집정책, 컬렉션 평가, 컬렉션 개발 정책의 시행 등

6가지를 제시하고, 수집정책에 포함될 사항으로 정책의 수립·검토 및 확장 담당자, 미술관 부서에 대한 책무, 컬렉션 규모 및 연간 성장에 대한 예측, 이용자 정보, 주제영역별 강도, 자료유형별 강도, 선택 원칙, 수집 방법, 자원 공유 등이 있다고 밝혔다.

Bettley(2001, 159-161)는 일반적으로 수집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모기관의 사명, 도서관 또는 컬렉션의 역사, 다른 도서관 간의 관계·모기관의 다른 구성요소와의 관계, 소장한 컬렉션의 주제에 대한 분석과 강점 및 약점, 필요한 경우 모기관의 구입 정책 등 5가지를 제시하였고, 그 외 컬렉션 개발을 위한 실제 정책에 추가되어야 할 사항으로 3가지를 언급하였다.

Hoffmann과 Wood(2005, 2-3)는 학술, 공공, 전문도서관을 위한 수집정책이 좋은 정책이 되기 위한 요소로 목적, 배경, 컬렉션 개발에 대한 책임, 사명·목표·목적 선언, 이용자, 예산 및 자금 조달, 평가 기준, 매체 유형, 정부간행물, 특정 자원 그룹 처리, 특별컬렉션, 자원 공유, 서비스 방침, 선택 도구, 저작권, 지적 자유, 수집 방법, 기증 및 교환, 컬렉션 유지 관리, 제적, 컬렉션 평가, 정책 개정, 용어 정의 및 용어집, 참고자료, 부록 등을 언급하였다.


Phillips(1984, 39)는 수집기록에 대한 명문화된 수집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기관 또는 컬렉션의 목적에 대한 설명, 컬렉션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유형, 이용자, 컬렉션의 우선순위 및 제한 사항, 수집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협력 계약, 자원 공유, 제적, 수집정책 및 절차, 개발 모니터링 및 컬렉션 개발 지침 검토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컬렉션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유형, 컬렉션의 우선순위 및 제한사항, 수집 수준 등에 대하여 세부 사항을 제시하였다.

위의 문헌에서 언급된 수집정책의 구성요소들을 정리하면 크게 모기관에 대한 요소, 도서관 및 아카이브에 대한 요소, 자료 수집에 관한 요소, 소장자료 및 컬렉션에 관한 요소, 기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여기에 세부 요소를 넣어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수집정책 구성요소

연구자/ 연구 대상		Schimansky(1981)	Bettley(2001)	Hoffmann & Wood(2005)	Phillips(1984)
		미국 미술관 소속 도서관	미술, 미술사, 디자인 분야의 정보원	학술, 공공 및 전문도서관	매뉴스크립트 컬렉션
모기관	사명, 목표		○		
	수집 또는 구입 정책		○		
도서관 및 아카이브	기능 또는 역할	○			
	다른 조직 또는 기관과의 관계		○		
	모기관에 대한 책무	○			
	배경 또는 역사		○	○	
	사명, 목표	○	○ ³⁾	○ ⁴⁾	○
	예산 및 재정 확보			○	
	이용대상	○		○	○
	지적자유			○	
프로그램 및 아웃리치			○	○	
협력 및 자원 공유	○		○	○	

수집정책 구성요소	연구자/ 연구 대상	Schimansky(1981)	Bettley(2001)	Hoffmann & Wood(2005)	Phillips(1984)
		미국 미술관 소속 도서관	미술, 미술사, 디자인 분야의 정보원	학술, 공공 및 전문도서관	매뉴스크립트 컬렉션
자료 수집	가격		○		
	강도 또는 수준	○	○		○
	기능	○			
	방법 및 절차	○		○ ⁵⁾	
	선택 도구			○	
	선택 및 평가 기준	○		○	
	언어적 범위				○
	연대기적 범위				○
	우선순위, 제한사항				○
	저자 및 출판사의 지위		○		
	정부간행물			○	
	주제 및 내용적 범위		○		○
	지리적 범위				○
콘텐츠의 학문적 수준			○		
소장자료 및 컬렉션	권리 및 복제 또는 저작권			○	
	기존 범위 및 컬렉션에 대한 설명, 매체 및 자료유형별 기술		○	○ ⁶⁾	○
	유지 관리(보존 포함)			○	
	제작			○	○
	컬렉션의 규모 및 연간 예상 증가량	○			
	컬렉션 평가, 컬렉션의 강점 및 약점		○	○	○
기타	특정 자원 그룹 처리			○	
	개정, 정책 개발 모니터링 및 감독			○	○
	부록			○	
	수집정책 개요	○			
	수집정책 목적			○	
	용어 정의 및 용어집			○	
	정책 실행 등과 관련된 절차				○
	참고자료			○	
컬렉션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책임자	○		○		

*  : 수집정책과 직접적 관련 없는 부수적 항목

위 구성요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된 요소는 도서관 및 아카이브의 '사명, 목표'이다. 이를 통해 수집정책의 내용으로 도서관 및 아카이브의 사명과 목표를 기술하는 것이 매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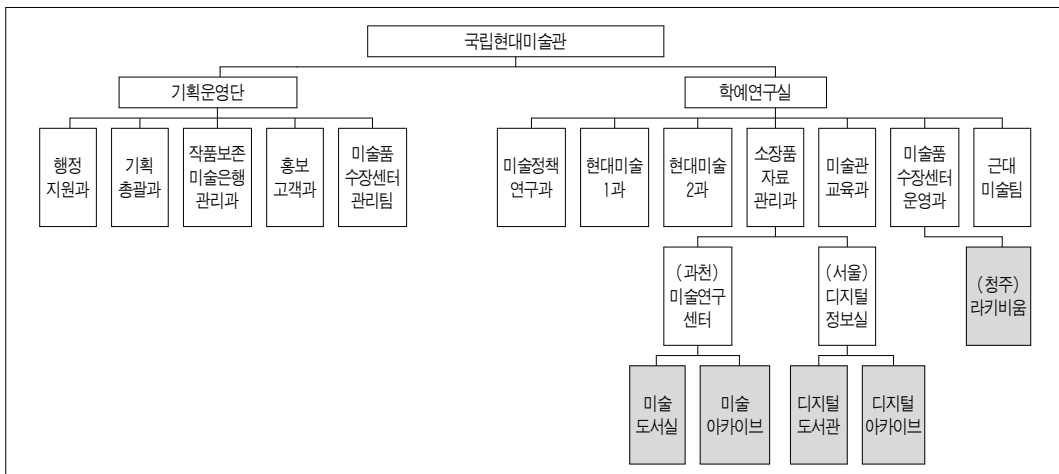
- 3) Bettley는 모기관과 도서관의 사명문을 하나의 항목으로 기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모기관의 사명과 도서관·아카이브의 사명으로 분리하였다.
- 4) Hoffmann과 Wood는 '정책의 사명, 목표 및 목적' 항목에 기관의 사명과 목표를 포함하여 기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수집정책 목적'과 '도서관 및 아카이브의 사명, 목표'로 분리하였다.
- 5) Hoffmann과 Wood는 '기증 및 교환'과 '수집 방법'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수집 방법에 기증 및 교환이 포함된다고 보고 한 항목으로 표기하였다.
- 6) Hoffmann과 Wood는 '특별컬렉션'에 관하여 별도로 명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컬렉션에 대한 설명에 포함된다고 보고 한 항목으로 표기하였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3개 이상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요소는 도서관 및 아카이브의 ‘이용대상’, ‘협력 및 자원 공유’, 자료 수집의 ‘강도 또는 수준’, 소장자료 및 컬렉션의 ‘기존 범위 및 컬렉션에 대한 설명, 매체 및 자료유형별 기술’, ‘컬렉션 평가· 컬렉션의 강점 및 약점’ 등이었는데, 이는 구체적인 수집 방법, 선택, 기준 등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컬렉션에 대한 정보와 강점 및 약점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현재와 앞으로의 수집 강도를 명시하는 것이 현재 컬렉션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강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국립현대미술관 시각예술자료 수집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조직 및 규정

국립현대미술관은 과천, 서울, 덕수궁, 청주 등 4개의 분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 및 아시아 근·현대 미술의 이해와 연구”를 위하여 시각예술자료를 수집, 관리, 보존, 열람 서비스 등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미술연구센터(과천), 디지털정보실(서울), 라키비움(청주)을 두고 있다(국립현대미술관, 2023, 74, 256). 미술연구센터는 미술도서실, 미술아카이브, 디지털정보실은 디지털도서관, 디지털아카이브로 구분되며, 이에 대한 조직도는 <그림 1>과 같다.⁷⁾ 구성인원은 미술도서실 2명, 미술아카이브 7명, 디지털도서관 4명, 디지털아카이브 4명, 라키비움 1명 등이다.



<그림 1> 국립현대미술관 조직도

7) 국립현대미술관-조직도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출처: <https://www.mmca.go.kr/about/organization.do>. [접근일 2024.3.30.]).

미술도서실과 디지털도서관은 수집 범위를 동시대와 근·현대로 구분하여 차별화를 하고 있었고, 미술아카이브와 디지털아카이브는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⁸⁾ 도서관은 수집한 자료들을 별도의 컬렉션으로 구분하지 않고 한국십진분류에 맞춰 주제별로 배가하고 있었다. 아카이브는 수집한 자료들을 수집기록과 미술관기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수집기록은 일반, 미디어, 건축 분야로 나뉘어 담당자가 배치되어 있었으며, 이와 별도로 작가 및 단체별, 기증자별, 주제별(미디어아트, 공공미술 등) 등으로 구분된 세부 컬렉션도 보유하고 있었다.

수집정책과 관련된 규정으로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자료 관리 규정』이 있다.⁹⁾ 위 규정에서는 시각예술자료를 ‘미술자료’로 표기하고, “미술관계 전문도서, 연속간행물, 학위논문집, 브로슈어, 리플릿, 포스터, 사진, 행정자료, 미술 관련 기사 등의 인쇄물 자료와 필름, 슬라이드, 테이프, 비디오, 음반 등의 시청각 자료, CD-ROM, 온라인 자료 등 전자매체 자료, 미술인의 생애 및 미술작품의 창작과 관련된 작가의 서신, 일기, 문서, 드로잉, 메모 등을 통칭”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도서와 아카이브로 구분하고 있다. 도서에는 “51쪽 이상의 단행본 도서, 도록, 연속간행물, 학위논문집 등”이, 아카이브에는 “도서를 제외한 모든 자료”가 포함된다. 이 규정은 1999년 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도서자료실 주요 운영 내규』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국립현대미술관, 1999, 94), 당시 도서관자료의 구분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인쇄와 비인쇄자료, 도서와 비도서자료의 개념을 그대로 차용하여 기록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결국 국립현대미술관의 시각예술자료에 대한 개념은 1999년의 시각에서 발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립현대미술관 아카이브에서 수집하는 시각예술기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기록물’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 기록으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개념으로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

수집 대상의 범위 및 내용을 규정한 제4조를 살펴보면 수집 대상은 시각예술분야로, 우선순위를 미술관 소장 작가, 한국 및 아시아 근현대미술로 명시하고 있을 뿐이며, 수집 제외 대상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자료나 중복자료만 명시되어 있어 수많은 시각예술자료 중 어떠한 것을 선별하여 수집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수집 기준은 제7조에 연구가치, 보존가치, 활용가치, 사료가치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가치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실제 어떠한 자료를 수집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수집 조건에 대하여 명시한 제10조 역시 자료의 물리적인 소유권과 저작물 이용허락에

8) 도서관, 아카이브의 역할에 대한 설명은 2022 국립현대미술관 연보(국립현대미술관, 2023, 77-82) 및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미술연구-도서와 아카이브)를 참고하였다.
9)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자료와 관련된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자료 관리 규정』과 『국립현대미술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이 있다. 미술자료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시각예술자료의 동의어로 특별한 제약 없이 접근 가능한 자료를 의미하고, 특수자료는 그 내용이 시각예술에 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접근이 제한되고 별도로 보관, 관리되는 자료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자료 관리 규정』에 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수집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이상 살펴본 바에 따르면 시각예술자료에 관한 규정은 도서자료실의 운영 내규, 미술아카이브 운영 규정, 미술자료 관리 규정으로 여러 차례 제·개정되었으나, 시대성이나 시각예술자료에 대한 인식, 개념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자료의 수집에 대한 명확한 기준으로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2. 수집 업무

앞에서 분석한 수집정책의 구성요소와 국립현대미술관의 규정을 바탕으로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수집 업무를 분석하였다.¹⁰⁾

도서관·아카이브의 수집 목적은 모기관의 목표를 지원하고, 내·외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각예술분야의 연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동일하지만, 도서관의 경우 최대한 많은 이용자에게 지속 가능한 정보제공을 보장하는 것에 그 가치를 두고 있었고, 아카이브의 경우 정보제공 외에도 미술사의 흐름 또는 사건, 작가의 세계 및 작품을 재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기록들을 보존하고 전시를 위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도 가치를 두고 있었다.

도서관의 수집 대상은 주로 시각예술분야의 인쇄자료이며, 학예사의 연구지원을 위하여 예외적인 경우 다른 주제분야의 도서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집 범위를 특별히 설정해 두지는 않았으나, 한국 작가의 자료, 한국시각예술(작가)에 대한 자료가 우선이었고, 언어적으로는 한국어, 영어로 된 자료를 우선 수집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집 유형은 인쇄매체 중에서도 도서와 연속간행물에 주로 한정되어 있었고, 전자책과 학술DB 등은 구독하고 있었으며, 수집 대상 및 유형에 따른 수집 강도나 수준은 설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카이브의 수집 대상은 매체 유형을 불문하고 미술관 소장작품 또는 작가와 관련된 기록, 미술 관련 단체 또는 사건과 관련된 기록, 미술관 업무수행 중에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 등이다(설문원, 백지원, 송치호, 2012, 9-10). 수집기록의 수집 범위는 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된 작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소장 작가에 대한 기록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래의 가치, 자료에 담긴 정보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비공개 상태로 수집·보관하고 있었다. 미술관기록은 업무 과정 중에 생산, 수집한 기록으로 전시 준비과정에서 생산되는 문서, 계약서 등이 포함되지만, 『전자정부법』에 명시된 행정정보나 기관에서 사용하는 정부업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생산된 문서 등은 제외하고 있다. 아카이브 역시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수집 강도 또는 수준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집 방법에 대해서는 도서관의 경우 구입과 기증이 유사한 비율이었고, 아카이브는 기증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도서관에서는 분기별로 구입을 진행하고 있었고, 구입 대상은 국내·외에서

10) 면담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근무하는 사서 1명, 아키비스트 1명을 대상으로 2024년 1월 10일부터 26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진행하였다.

발간된 단행본을 중심으로 사서의 조사, 내부 직원의 추천, 중개업체의 정보 등을 참고하여 담당 사서 및 부서장이 최종 결정하고 있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기관에서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사서에 의한 직접적인 수시 구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시 도록과 같이 일정 시간, 일정 장소에서만 판매되는 경우 구입하지 못하거나 입수가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으며, 분실, 훼손, 결호 등 컬렉션을 보완해야 하는 경우에도 구입 절차의 제약으로 인해 소급 수집이나 컬렉션의 공백을 메우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전시도록의 기증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기관 간 교환 협정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으나 타 부서 담당 업무라는 점, 도서관 내 담당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어 단시일 내에 쉽게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밝혔다.

아카이브는 구입 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자료 관리 규정』 제8조에 따라 자료수집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과정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기증의 경우 미술관 직원, 작가, 유관기관 등을 통한 대량 기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집 제한에 대한 사항으로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의 부재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적합하지 않은 자료가 혼재된 대량 기증이 들어왔을 때 자료를 선별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경우, 외부에서 기관의 목적에 맞지 않는 기증을 받으라는 압력이 들어오는 경우, 기증의 대가로 특별한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작가가 찾아와 자신의 책을 구입하라고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당 직원의 수집 여부에 대한 판단, 선별 과정 등을 뒷받침해줄 규정이 없어 기증자를 설득하거나 외부의 압력으로 부터 기관을 보호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수집된 자료의 처리 절차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도서관과 아카이브는 각각 수집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 서로가 어떤 자료를 수집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업무를 협의할 통로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1쪽 미만의 도서가 도서관에 입수된 경우, 해당 자료는 아카이브로 전달되는데, 자료의 등록 여부 및 이용 시기 등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나 소통 경로가 부재했으며, 만약 어떠한 자료가 수집 기준에 맞지 않아 폐기되어야 하지만 도서관 또는 아카이브가 등록할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 어떻게 예외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절차가 없어 담당자 임의로 처리하고 있었다.

제적에 대하여 제26조에 폐기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도서관과 아카이브 모두 폐기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사항으로 자료 수집 시 복본의 수는 국립현대미술관 발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국립현대미술관의 발간물인 경우 도서관은 도서에 해당하는 유형만 총 10부를 수집하고, 아카이브는 도서를 포함하여 매체 유형에 관계없이 종류별로 각 5점(부)씩을 수집하고 있었다. 아카이브에서 도서까지 수집하는 이유는 아카이브가 국립현대미술관 발간물에 대한 보존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발간한 자료가 아닌 경우, 도서관은 관별로 1부씩을 수집하고 아카이브는 3점씩을 수집하나, 수집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도서관의 경우 관별 간 차별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립현대미술관 발간자료를 제외한 자료는 중복 소장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나, 이는 부서장 또는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다.

이상 수집 업무를 분석한 결과 규정에 명시된 자료 구분에 따른 문제, 구체적이지 않은 수집 절차 및 업무 처리 기준, 적극적인 수집을 방해하는 제도, 협업 및 의사소통 경로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이 중 일부 문제점들은 수집 업무 과정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일이었으며, 수집정책의 수립과 제도의 개선만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는 상황임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IV. 수집정책 사례 분석

국가 또는 지역을 대표하는 미술관을 모기관으로 둔 도서관 및 아카이브 중에서, 명문화된 수집 정책을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국립현대미술관과 같이 하나의 규정으로 도서관과 아카이브가 수집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사례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방법은 2장에서 도출된 수집정책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 중 3개의 부가적인 요소인 부록, 용어 정의 및 용어집, 참고 자료는 제외하였다.

1. 캐나다국립미술관 도서관·아카이브

캐나다국립미술관(National Gallery of Canada, 이하 NGC) 도서관·아카이브(The Library and Archives, 이하 L&A)의 현재 시행 규정은 2018년 도서관 및 아카이브 정책(National Gallery of Canada, 2018)이며, 참고를 위하여 1997년 발행된 수집정책(Canadian Centre for the Visual Arts, 1997)도 공개하고 있다.

이 두 개의 정책을 살펴보면 정책의 목적, L&A의 사명과 발전사 외에 모기관인 미술관의 사명과 목표, 수집에 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수집정책의 목적은 L&A의 컬렉션 관리와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일반 원칙을 확립하는 것으로, 수집정책 시행에 대한 주요 책임은 미술관장 및 CEO의 지시에 따라 컬렉션 및 연구 부관장과 수석 학예사에게 있다.

L&A의 목표는 주로 캐나다에 관한 연구와 학습을 촉진하는 것으로, 특히 캐나다 예술과 박물관학에 중점을 두고, 미술관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 등의 연구를 지원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용자 요구는 일반 정보 및 참고 수준에서 지원될 수 있지만 도서관의 주요 방점은 연구지원에 있다. 국제적으로는 국립도서관 시스템 등에 참여하여 도서관 소장자료를 캐나다 전역과 해외 사용자도 접근 가능하게 서비스하고 있다.

NGC에는 다양한 위성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중 부서별 컬렉션은 각 부서별 책임으로 도서관에서 처리하지 않는다. 제휴도서관으로는 캐나다현대사진박물관(Canadian Museum of Contemporary Photography, 이하 CMCP)에 위치한 연구센터가 있다. CMCP 연구센터는 L&A와 협력하여 자료의 중복을 방지하고, 상호대차를 지원하며, 국립미술관 도서관 시스템을 통해 CMCP 단행본과 전시도록에 대한 열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L&A는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연구 요구 충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명확하게 확립된 우선순위 내에서 강점을 강조함으로써 연구센터로서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대한 주요 선택 기준은 NGC 연구 임무와의 관련성이며, 특히 캐나다 작가가 저술했거나 캐나다 기관에서 나온 모든 미술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추가적인 고려 요소에는 해당 지역의 미술관 및 도서관 소장자료의 강도, 간행물의 본질적인 지적 또는 예술적 가치, 주제에 대한 간행물의 희소성, 취급 수준, 간행물의 내용 및 표현, 형식, 특수한 특성 및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수집 강도는 수집에서 제외되는 '0: 범위 외'부터 도서관이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모든 중요한 저작물을 포함하려고 노력하는 수준인 '5: 포괄적 수준'까지 6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세부 컬렉션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자료 선택에 대한 책임은 수석 사서와 위임받은 도서관 직원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며, 학예사와 협력하여 작업하고 이용자로부터 희망 자료를 추천받기도 한다.

수집 방법은 구입, 교환, 메일링리스트, 기증, 기탁, 이관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도서관은 NGC 발간물의 배포 및 교환을 위한 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전 세계 시각예술기관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일부 기관과 교환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도서관의 기증 및 이관은 수석 사서의 재량에 따라 수집 가능한데, 특히 기증은 소유권이 NGC로 이전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기증자료의 보관, 위치, 목록 작성, 사용 및 처리에 대한 결정권은 모두 도서관이 보유한다. 특별한 조건 등이 첨부된 기증은 일반적으로 거부하고, 모든 기증은 NGC의 자산으로 귀속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집 범위에 있어서도 언어, 연대기, 주제, 지리적 범위를 모두 명시하고 있는데, 언어적 범위의 경우 캐나다의 두 가지 공식 언어(영어, 프랑스어)를 중심으로 캐나다 간행물은 두 언어판을 모두 수집하고, 2차적으로 서유럽 언어를 강조하고 있다. 연대기적 범위는 시대에 따른 제한은 없으나 중세 말부터 현재까지의 예술은 이전 시대의 예술보다 더 강조된다고 밝혔다. 주제의 경우 도서관 컬렉션은 박물관학, 시각예술, 사진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다른 주제 분야도 수집한다고 밝혔고, 지리적 범위의 경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지만 주로 캐나다 예술에 중점을 두고, 캐나다의 시각

예술과 관련된 모든 간행물과 문서를 수집하려고 시도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점 분야의 경우 소급 수집을 통해서라도 컬렉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NGC L&A는 컬렉션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명시하고 있는데, 초·중·고등학생용 또는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나 캐나다 이외 지역의 고고학 및 수집품 관련 자료, 예술작품과 예술가의 영화, 비디오 등은 예외적인 경우만 제외하고 수집을 제한하고 있다.

컬렉션의 유지, 관리 항목에서는 필요한 경우 자료를 교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보존에 대한 책임을 도서관 및 미술관 직원과 모든 이용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존에 대한 기본 원칙을 이용자에게 교육하고 있다. 각 컬렉션의 자료는 연구를 위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수집품으로 간주하고, 컬렉션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자료에 대한 복제는 일부 자료에 한해 가능하지만, 자료 상태 및 다른 제한사항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며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제작 항목에서는 아이템별 검토를 기반으로 최소한의 자료에 대해서만 제작 처리를 수행한다고 밝히며, 연구자료는 일반적으로 현재의 관련성이 아닌 역사적 관심사를 위해 보관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자료는 검열 조치의 결과로 폐기되지 않으며, 참고 자료 컬렉션의 경우 지속적으로 재구성되거나 시각예술과 관련된 대체 도서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였다.

다른 연구센터와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캐나다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Canada)과의 협력이다. 『캐나다국립도서관법』(1953)¹¹⁾의 낱본 규정상 L&A와 국립도서관은 수집 업무의 중복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립도서관은 NGC도서관을 국가 자원 컬렉션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NGC도서관은 시각예술에 관한 맥락적, 지원적 자료의 국제적인 수집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원 공유를 위하여 도서관 상호대차를 통해 다른 기관에 제공하고 있는데, 이 경우 캐나다 도서관 상호대차 규정의 표준에 따라 도서관자료만 가능하고 일부 자료는 제외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사본이 제공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NGC L&A 수집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수집정책 구성요소에는 없지만,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 다른 정책 또는 규정과의 관계, 컬렉션에 대한 접근, 복본 수 등 특이사항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컬렉션에 대한 접근 규정을 살펴보면 도서관자료 중 희귀본 등을 제외하고 미술관 직원 및 소속 연구원이 6개월 단위로 대출 가능하며, 슬라이드는 2주 단위로 대여 가능하다. 다만, 아카이브 자료는 대여가 불가하다. 또한 일부 서기는 미술관 직원 및 소속 연구원에게만 개방되며, 다른 이용자들은 이용할 도서를 대출데스크에 요청해야 한다.

11) NGC L&A 수집정책에 기재된 관련 법은 1953년의 국립도서관법으로(Canadian Centre for the Visual Arts, 1997, 16), 2004년 이후에는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 SC 2004, c. 11』로 대체되면서 폐지되었다 (Available: <https://www.canlii.org/en/ca/laws/stat/rsc-1985-c-n-12/latest/rsc-1985-c-n-12.html>, [접근일 2024.3.30.]).

복본자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NGC 관련 간행물은 3부, 기타 캐나다 관련 간행물은 2부, 국제 간행물은 1부를 수집하며, 캐나다 정부 문서의 경우 공식 언어별로 각 1부씩 수집하지만, 경우에 따라 추가 사본을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제책 형태는 양장본을 우선시하며, 특이사항으로는 책 커버를 책의 필수요소로 보고 소장품으로 보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 빅토리아앤알버트뮤지엄 국립미술도서관

빅토리아앤알버트뮤지엄(Victoria and Albert Museum, 이하 V&A)의 국립미술도서관(National Art Library, 이하 NAL)은 예술과 디자인에 관한 영국 최고의 연구 및 참고 기관이다(National Art Library, 2021, 3).

NAL의 수집정책은 국립미술도서관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과 도큐멘터리 수집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NAL은 V&A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핵심 주제 수집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여러 서비스를 통해 복잡하고 자주 변화하는 연구 의제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집의 기능은 비용-효율성 극대화이며, 선택의 목표는 컬렉션 개발의 품질과 무결성을 보장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업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NAL은 미술과 디자인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연구와 지식을 보존하고 장려하며, 왕립 예술대학(Royal College of Art)과 협력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NAL의 도서관 컬렉션은 본질적으로 학예사의 업무를 위한 것이지만 모든 자료는 온라인 시스템에서 검색되어야 하고 대중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참고용 도서는 대부분 학습실에 비치되어 있다.

NAL 컬렉션은 일반적으로 영구 보존을 위해 수집한 지정 유산 자산으로 법적 납본 규정에 따라 간행물을 받지 않고 있으며, 수집 예산의 90%는 도큐멘터리 자원에 사용되고 있다.

V&A의 여러 도서관들을 NAL이 직접 관리하기도 하지만, V&A의 학예부서는 별도로 업무 도서관을 보유할 수 있다. 이들은 독립적으로 관리되며, 일부 소장자료는 NAL 디스커버리(NAL Discovery)를 통해 접근 가능하고, 만약 소장자료를 처분할 경우 NAL에 제공된다.

NAL은 재정 및 공간상의 이유로 각 주제 영역에서 자료가 중복 소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NAL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미술관 연구에 필요한 간행물은 각 부서에서 수집하도록 하고 있다.

자료 선택은 관련 주제 분야의 현재 및 최근 자료의 범위, 가용 예산 등을 고려하여 NAL 컬렉션팀이 주도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수집의 과정은 적극적이면서도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직원과 도서관 이용자의 요청을 반영하고, 전문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구입은 주요 컨소시엄이 승인한 공급업체로부터 조달하고, 그 외에는 V&A가 승인한 절차에 의거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중개인을 통해 처리하기도 한다.

규정에는 자료 선택을 위한 기준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가장 관련성이 높고 유용하며 권위 있는 저작물을 선택하는 것을 목표로 기존 정보를 단순하게 재포장하는 자료(도서 디자인 사례 제외)는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해당 주제가 잘 다루어지고 온라인에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 우선순위에서 제외된다. 선택의 기준 중 '최신성'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은 V&A의 또 다른 특징이다. 다른 곳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우 컬렉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소급적 수집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장자료를 크게 '주제: 핵심영역', '주제: 맥락/배경/참고영역', '매체 및 컬렉션: 출판 장르', '매체 및 컬렉션: 미디어', '도큐멘터리 매뉴스크립트'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영역별로 수집 대상 및 범위, 수집 강도 및 기준, 수집 계획 등을 기술하고 있다. 특히 도큐멘터리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은 1차 원본 자료와 2차 자료로 구분되는데, 1차 자료에는 작가들의 논문, 서신, 일기 등 다양한 기록들이 포함되며, 일부 자료는 유일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2차 자료에는 메모와 필사본, 학자들의 회고록과 기사 등 이전에 NAL에서 '타자본 매뉴스크립트'로 분류되었던 자료들이 포함되며, 앞으로는 온라인 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우선할 계획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언어적 범위는 핵심영역의 경우 언어에 관계 없이 내용과 이미지의 유용성과 가치를 기준으로 수집하지만, 현재는 주로 영어로 된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지리적 범위는 V&A 컬렉션의 지리적 범위(영국, 유럽, 동아시아, 인도 및 동남아시아, 중동)를 반영하고 있다.

수집하는 복본의 수는 V&A 발간물을 제외한 간행물은 일반적으로 1부만 수집한다.

V&A NAL 수집정책은 제적에 관한 사항을 매우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V&A의 수집 및 폐기 정책을 따르며, 도서관의 특별컬렉션에 포함된 자료는 소장품으로 간주한다. 대부분의 도큐멘터리 및 참고 자료는 영구 보존용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관련성이 있고 NAL 맥락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경우 해당 관리자의 권한에 따라 폐기 가능하다. 폐기할 수 있는 경우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정기적인 폐기에 해당하는 자료인 경우 다른 도서관에 이관되어 적절한 배치가 가능할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폐기에 관한 세부 정보는 NAL 카탈로그에 기록된다.

자원 공유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NAL은 도서관 간 상호대차를 통해 V&A 직원을 위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고, M25 컨소시엄의 멤버십을 통해 많은 학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다른 도서관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명시하고 있는데 영국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을 포함한 대학, 박물관 도서관 등 다른 곳에서 이용 가능한 소장자료를 불필요하게 중복하지 않아야 하고, 널리 이용되지 않는 자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학술 분야의 예술 및 디자인

컬렉션을 보완하는 차별화된 컬렉션을 유지해야 하며, 특히 영국국립도서관이 영국에서 발간된 모든 간행물을 수집하고 있으므로 해외에서 발행된 관련 자료를 식별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 외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에 관하여 공동 수집을 공식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활발한 전문 네트워크를 통해 소통 및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V&A NAL 수집정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디지털 환경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새로운 자료의 추가만큼 소장자료의 디지털화를 강조하였다. 가장 가치 있고 특색있는 소장자료를 디지털로 제공하여 고유 자료의 이용 활성화와 연구 잠재력을 자극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서관의 선택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는 모든 자료를 수집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하며,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3. 클리블랜드미술관 Ingalls도서관 및 미술관 아카이브

클리블랜드미술관(Cleveland Museum of Art, 이하 CMA)의 Ingalls도서관 및 미술관 아카이브(이하 CMA도서관·아카이브)의 임무는 CMA의 가치에 따라 정보를 식별, 수집, 정리, 제공하는 것으로, 이용 대상은 일반 대중까지 포함하고 있다.

수집정책의 규정은 크게 Ingalls도서관과 미술관 아카이브로 구분되어 있으며, 수집정책은 유효성 보장을 위해 2년 단위로 재검토된다.¹²⁾

도서관 수집정책의 목적은 선택에 대한 당위성, 컬렉션 정리·보관 및 유지 비용 증가로 인한 자료 선택의 윤곽과 우선순위를 제시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아카이브 수집정책의 목적은 미술관의 법적 권리와 재산 소유권을 보호하고, 정부 및 업무 규정을 준수하며, 미술관의 활동, 운영 및 성과에 대해 구성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Ingalls도서관은 CMA의 연구도서관으로서 미술관의 현재와 미래의 컬렉션, 연구, 전시, 간행물, 강의, 프로그램 및 활동을 지원하고, CMA-CWRU(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미술사 및 박물관학 공동 프로그램에 등록된 교수진과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컬렉션으로는 모든 지리적 영역과 모든 시대의 예술을 아우르는 풍부하고 광범위한 발간자료 컬렉션과 CMA의 역사를 기록한 보존기록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다.

미술관 아카이브의 역할은 CMA의 제도적 기억으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기관의 기원, 발전, 업적 및 활동을 문서화한 기록을 보존하고 있으며, 컬렉션으로는 CMA의 역사적 기록과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CMA의 기록관리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으며, Ingalls도서관

12) CMA의 'Ingalls Library and Museum Archives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웹페이지에는 2년 단위로 수행한다고 나와 있으나, 'Ingalls Library and Museum Archives' 웹페이지에서는 3년마다 검토된다고 적혀있다.

관에 기록 목록을 제공하고 OhioLINK 및 주 전역의 리포지토리에 검색 도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디지털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기록 관리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직원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종 워크숍, 그룹 대상 강의, 프레젠테이션 및 소셜 미디어 활동 등 다양한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CMA 역시 여러 개의 위성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성도서관 및 4층의 도서관자료는 Ingalls 도서관 직원이 수집·관리하며 서지 정보도 온라인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나, 미술관의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컬렉션들의 자료 관리는 해당 부서의 책임이며 서지 정보도 보유하지 않는다.

협력 및 자원 공유 측면에서 도서관은 지역의 공공 및 사립 도서관과 상호협력하여 도서관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CWRU의 Kelvin Smith도서관, 클리블랜드미술대학(The Cleveland Institute of Art)의 Gund도서관과 비공식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Ingalls도서관의 수집 범위를 벗어난 자료를 이용할 때는 이러한 협정을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상호대차를 통해 Ingalls도서관 컬렉션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카이브의 경우 다른 지역 아카이브와 공식적인 협의는 없지만 필요에 따라 보다 적절한 기관으로 안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수집 수준은 매우 선별적으로 수집하는 '최소 수준'부터 가능한 한 모든 관련 학술 저작물을 수집하는 '연구 수준'까지 4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컬렉션 또는 매체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자료 유형은 단행본부터 비디오/오디오 테이프 및 필름·비닐류까지 매우 상세하게 구분하여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비디오/오디오 테이프 및 필름·비닐 유형은 연구에 중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수집하지만, 소장한 모든 매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수는 없으며, 이용을 원할 경우 사전에 자료 요청을 해야 한다. 참고자료 컬렉션은 모든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시각예술분야의 참고자료와 일반분야의 참고자료를 구분하여 해당되는 자료를 기술하고 있다는 점도 본 수집정책의 특징이다. 팸플릿 및 단명자료 컬렉션은 기관 파일, 예술가 파일, 엽서 컬렉션으로 구분되는데, 기관 파일에는 CMA 및 기타 클리블랜드 문화 및 교육 기관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가 포함되며, 예술가 파일은 클리블랜드 지역과 오하이오 북동부 지역의 예술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집 방법으로는 구입, 기증, 교환 등이 있는데 기증의 경우 구입한 자료와 동일한 학술적 가치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도서관이 보유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위임받은 경우에만 수락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료 교환의 경우 도서관은 전 세계 기관과의 요청에 따른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나 자료의 획득을 위하여 교환 프로그램에 의존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CMA도서관·아카이브 수집정책은 자료의 수집 절차 및 담당자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자료의 선택은 컬렉션별 또는 유형별로 도서관장, 사서, 해당 컬렉션 담당 학예사 등이 분담하고 있다. 자료의 추천은 모든 직원이 가능하며, 연구 및 프로그램 책임자는 참고자료 컬렉션 개발에

관하여 요청할 수 있다. 도서관 컬렉션의 전반적인 개발에 대한 최종 책임은 도서관장이 보유하고 있으며, \$1000.00을 초과하는 개별 구매는 도서관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수집에 대한 언어, 연대기, 지리적 범위를 살펴보면 언어적 범위로는 컬렉션의 국제적 특성과 백과사전적 범위를 반영하여 모든 언어의 간행물이 수집 대상이나, 대부분의 자료는 영어와 서유럽 언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시아 미술 관련 자료는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로 수집하고 있다고 한다. 시기적으로는 원사 시대부터 21세기 예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의 예술자료를 수집하며, 지리적으로는 원주민 및 해양 예술을 제외한 모든 문화 및 지리적 지역의 자료를 포함하는 미술관 컬렉션의 백과사전적 범위를 반영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수집 제한사항으로는 도서관의 경우 아티스트북, 원고, 슬라이드, 사진, 원본 판화 또는 기타 예술작품은 적극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만약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련 정책에 따라 처리한다고 밝혔다. 아카이브의 경우 미술관 주요 컬렉션과 관련된 기록은 수집하지 않으며, 이러한 기록은 소장품관리원 또는 학예사 사무실에 보관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기업용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은 수집되지 않지만, 이러한 시스템에서 생산된 보고서는 기록 보존 일정에 따라 수집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서관은 자료의 보존에 대한 책임이 모든 미술관 직원과 도서관 이용자의 책임이라고 밝히며, 소장자료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도서관자료는 연구도구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수집품으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으며, 만약 자료가 심하게 손상되어 교체가 필요한 경우 기존 컬렉션의 대체 가능 여부, 장기적인 가치와 수요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분실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교체를 위해 노력하며, 만약 이용자가 분실한 경우에는 \$25.00의 수수료와 교체 비용이 청구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카이브의 보존책임에 대해서는 아카이브 책임자가 해당 기관에서 적절한 자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기록 정책 및 보존 일정을 수립할 전적인 책임을 지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료의 제적에 대해서 도서관은 현재의 필요성을 넘어 예술 분야 연구를 위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므로 제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히며, 제적을 위해 선택된 자료는 개별적으로 검토되고, 검열의 한 형태로 어떠한 자료도 제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카이브의 경우 영구 보존이 예정된 기록물은 표준 보관 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만약 특정 유형의 자료 폐기가 포함되더라도 영구 컬렉션의 전면적인 파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수집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인 복본 수, 판사항 및 매체, 신판 및 재판본 등에 관하여 자세히 명시하고 있는데, 복본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면 CMA 발간물인 경우 3부, CMA 관련 전시 도록인 경우 2부 등을 수집하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는 복본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책 형태는 양장본을 선호하고, 명시된 규정에 해당될 경우 책 커버와 책 슬리브를 보관한다고 밝혔다.

4. 수집정책 비교 분석 및 시사점

수집정책 사례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정책의 목적, 기관의 목표 및 역할, 기존 컬렉션에 대한 설명 또는 수집 범위 등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2장에서 도출된 수집정책 구성요소와 유사하다. 반면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설명이나 모기관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 예산 또는 재정과 관련된 내용 등은 구성요소에서는 도출되었지만 사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실제로 수집정책을 작성할 때 다른 정책에 포함될 수 있는 요소들은 제외하고, 수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만을 자세하게 기술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사례 분석이 시사하는 바는 먼저, 각 기관이 수집정책을 명문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의 내용은 기관의 목적과 그에 맞는 적합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절차와 방안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수집 대상을 기술하고 우선순위와 제한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수집 범위를 분명하게 설정하였다. 특히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NGC는 강점분야에 대해 소급 수집을 통해서라도 컬렉션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한다고 하였고, V&A는 자료에 대한 선택이 적극적,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수집 방법에 따른 입수 조건과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실무자의 업무 처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다.

두 번째로는 수집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수집정책을 관리할 책임자와 개정 주기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Gorman과 Howes(1989, 7)는 컬렉션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처럼 정책도 성장하고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식화된 정책이 영원히 고정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NGC는 정책 시행에 대한 주요 책임이 컬렉션 및 연구 부관장과 수석 학예사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CMA는 개정 주기를 2년으로 명시하고, Ingalls도서관에 대한 책임은 도서관장에게, 미술관 아카이브에 대한 책임은 아카이브 책임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각 기관들이 국가 또는 지역을 대표하는 시각예술자료 수집기관으로서 차별화된 선별적 수집과 특색 있는 컬렉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NGC L&A는 캐나다국립도서관, 지역 내 다른 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통해 서로의 공통 관심 영역과 서로가 수집하지 않는 영역을 고려한다고 밝혔으며, V&A NAL은 다른 곳에서 이용 가능한 소장자료를 불필요하게 중복 수집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 결과 수집된 자료는 다른 곳에서 쉽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문화적 유산이 된다. NGC는 수집품으로, V&A는 지정 유산 자산으로, CMA는 미술관의 소장품으로 명시하고, 작품만큼 중요한 자산으로 취급하여 이를 수집, 관리,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었다.

네 번째로는 컬렉션을 다양하게 세분화하고 그에 맞는 수집 범위와 수집 강도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각예술분야라 하더라도 회화, 공예, 조각, 미디어아트, 공연예술 등 세부 주제가 있으며, 참고용 자료, 연구용 자료 등 이용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보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례로 제시된 NGC L&A, V&A NAL, CMA도서관·아카이브 모두 컬렉션을 세분화하여 해당 컬렉션을 이용할 주이용자 집단을 분석하고, 이용자에게 어떠한 정보를 어느 수준으로 제공할 것인가, 정보를 어디까지 제공하는 것이 기관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등을 고려하여, 주제별, 이용범위별, 유형별로 다르게 수집 범위와 강도를 설정하고 있었다.

다섯 번째로는 컬렉션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기관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각예술분야로 주제 분야를 한정하는 것은 결국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수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기관은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다른 도서관과의 이용 협정, 상호대차, 멤버십 취득 등을 통해 소장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었다. NAL은 도서관 간 상호대차를 통해 V&A 직원을 위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고, M25 컨소시엄의 멤버십을 통해 많은 학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CMA는 다른 기관과 비공식 협정을 체결하고, 수집 범위를 벗어난 자료를 이용할 때는 이러한 협정을 활용하도록 권장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사례로 검토된 기관들은 국가를 대표하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책무도 인지하고 있었다. NGC는 세계 최고의 연구센터로 기관 내, 국내, 국제적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히며, 국제적인 수집에 대한 책임과 소장한 자료들을 캐나다와 해외에 알리는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V&A는 예술과 디자인에 관한 영국 최고의 연구 및 참고 기관으로서, 자신들이 구축한 컬렉션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관의 정책이라고 밝히며, M25 컨소시엄 참여, Internet Archive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들의 자료를 공유하고 있었다. CMA는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미술 연구기관으로서 자신들의 자료를 OhioLINK, Getty Research Portal, Internet Archive 등 컨소시엄 및 온라인 검색 플랫폼에 공유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들은 국내 서비스에만 국한하지 않고, 발전된 기술을 이용하여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V. 국립현대미술관 시각예술자료 수집정책 수립 방안

국립현대미술관은 서울관의 설립 초기에는 연구지원을 위한 조직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관의 개관을 준비하면서 시각예술자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연구 결과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고, 수집 업무는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국립현대미술관의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자료 관리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특히 현행 규정에서 시각예술자료를 매체 유형을 기준으로 도서와 아카이브로 구분하는 것은 도서관의 가치

에도, 아카이브의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 규정이다. 비인쇄자료, 비도서자료라 하여 도서관자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며, 비도서형태라고 하여 전부 기록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제2조에 명시된 ‘미술자료’는 자료의 유형이 아니라 개념적으로 재정의되어야 하고, 제3조의 자료 구분 역시 자료의 물리적 매체가 아닌 도서관과 아카이브의 가치를 반영하여 수정되어야 한다.

둘째, 규정의 목적 또는 취지에 부합하는 명문화된 수집정책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수립정책은 모기관의 사명을 반영하면서도 도서관과 아카이브의 목적 및 가치를 고려하고, 국내 시각예술자료 수집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수립정책을 공유함으로써 유관기관 간 소장자료가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고 특성화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기관 고유의 수집정책을 수립하여 컬렉션의 차별화를 실현하고, 각 기관들 간에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구축된다면, 시각예술분야의 연구지원에 있어 매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셋째,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고 시대성이 반영된 수집정책으로 유지해야 한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책임자와 개정 주기를 명시함으로써 수집정책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의 도서관과 아카이브에 적용되는 예규를 보완하기 위하여 수집정책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따라서 수집정책의 개정 주기를 2-3년으로 설정하고, 개정 업무를 담당할 자를 책임자급으로 지정하여 수집정책에 명시해야 한다.

넷째, 컬렉션을 세분화하고, 각 세부 컬렉션별로 수집 대상, 수집 범위, 수집 강도 등을 다르게 설정하여 자료 선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참고용 자료, 연구용 자료, 희귀자료, 시·청각 자료, 주제별 또는 시대별 기록 등 자료의 용도, 성격, 필요에 따라 컬렉션을 다양하게 구분하고, 컬렉션별로 포함될 자료와 수집 범위 및 강도 등을 명시하고 있다.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모든 주제 분야의 자료를 똑같은 수준으로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다. 따라서 이용범위와 중요도에 따라 수집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수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수집정책에 우선순위와 제한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시각예술분야 또는 소장 작가의 자료라고 하여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보관할 수는 없으므로 자료의 선택 기준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특히 우선순위를 통해 자관의 강점을 만들고,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자료라면 적극적인 수집, 소급적 수집을 통해서라도 컬렉션의 공백을 없애고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수집 대상과 범위에 포함되더라도 기관의 현실적인 상황 등으로 인해 자료를 취사선택해야 할 경우, 제한사항 등을 통해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국립현대미술관 내에서 도서관과 아카이브가 협업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의 규정상 도서관과 아카이브는 ‘미술자료’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도서관과 아카이브에 적합한 자료를 구분하여 등록,

관리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도서관과 아카이브 중 누가 관리하여야 할지 애매한 자료나, 수집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료 등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는 업무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담당자들이 임의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예외적인 상황에 대처하고, 논의를 통해 일관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일곱째, 국립현대미술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시각예술자료 수집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인식하고, 자원 공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수집정책에 제시하여야 한다. NGC, V&A, CMA는 국가 또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국립도서관을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디지털화, 온라인 기반 자료 공유 등을 통해 자관을 방문하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이용자에게 자신들의 소장자료를 홍보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국립현대미술관은 현재 직접 방문하지 않고는 자료를 이용하기 어려우며, 이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적 체계도 미흡하다. 그러므로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다양한 접근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VI. 결 론

시각예술자료는 매우 방대하다. 출판사에서 발행되어 유통되는 자료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전시가 매일 개최되고 있다. 전시마다 도록, 팸플릿, 학술자료, 보도자료 등이 생산되며, 일부 전시는 세상에 알려지기도 전에 종료된다. 한국 작가라 하더라도 한국 내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며, 외국 작가, 외국 전시라고 하여 연구에 필요하지 않다고 할 수도 없다. 이 모든 자료를 하나의 기관이 온전히 책임지고 수집하여 이용에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미술관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은 자료의 수집을 원활하게도 하지만 작품 우선 수집, '미술관 안'이라는 한정된 공간 등의 단점에도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반드시 명문화된 수집정책을 가지고 체계적인 수집전략을 세워 운영해야 정체성을 잃지 않고, 불필요한 자료를 소장하지 않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현대미술관 도서관·아카이브의 상황은 열악하기만 하다. 현재 국내에서 시각예술자료를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기관 중 국가적 차원의 수집을 수행하고 이러한 자료를 다른 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은 국립현대미술관뿐임에도 불구하고 자료 수집을 위한 기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규정의 정비, 수집정책의 수립 및 공유, 세부 컬렉션별 수집 기준 제시, 우선순위 및 제한사항 명시, 수집 관련 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 마련, 국가적인 책무에 관한 사항 명시 등 7가지로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립기관이라는 점과 여러 개의 분관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을 활용한다면, 보다 많은 자료를 수집, 보존할 수 있을 것이며, 이용자 집단에 따라 차별화된 정보서비스 제공도 가능해질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309호.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자료 관리 규정. 예규 제226호.
국립현대미술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 예규 제225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제19481호.
전자정부법. 법률 제19030호.
캐나다국립도서관법(National library Act) (1953).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 SC 2004, c. 11.
- 국립현대미술관 (1999). 미술관과 자료.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2023). 2022 미술관 연보.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미술연구-도서와 아카이브 [n.d.]. 출처:
<https://www.mmca.go.kr/bookArchive/bookArchiveMain.do>
국립현대미술관-조직도 [n.d.]. 출처: <https://www.mmca.go.kr/about/organization.do>
김기현 (2000). 아트 아카이브(art archives)의 국내 도입을 위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10.23169/cau.000000000831.11052.0000587
김달진 (1999). 국내 미술자료 실태와 관리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문화예술학과 예술학 전공.
김달진 (2008). 국내 미술자료실 실태조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소위원회 편. 시각예술
분야 아카이브 현황 및 활용방안 연구. 서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2-34.
김달진 (2009). 미술자료 관리와 자료실 실태, 미술정보센터 설립. 조형아카이브, 1, 55-91.
김달진 (2012). 한국 미술아카이브의 분포 상황 및 수집 여건과 과제: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4, 241-284.
김민수 (2011). 미술아카이브의 기록 수집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김용범 (1992). 예술자료관의 역할과 위상. 문화예술, 155. 출처:
http://www.arko.or.kr/zine/artspaper92_06/index9206.htm
김인혜 (2012).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 아카이브 운영 구상.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4, 301-310.
김철호 (2007). 시각예술분야 자료관리 현황. 예술경영지원센터 편. 예술자료의 체계적 관리 활용
방안 포럼. 서울: 예술경영지원센터, 23-43.
노문자 (1998). 미술작품 전시회 카타로그에 관한 연구: 예술사적 특수자료서의 가치와 도서관에

- 서의 관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8, 219-262.
- 맹홍균, 김연희 (2018). 시각예술 아카이브 발전방안 연구. 디지털예술공학멀티미디어논문지, 5(2), 165-174. 10.29056/idaem.2018.12.09
- 명지대학교 디지털아카이빙연구소 (2012a).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정보자료관 구축전략 수립 연구 용역: 별책. 서울: 명지대학교 디지털아카이빙연구소.
- 명지대학교 디지털아카이빙연구소 (2012b).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정보자료관 구축전략 수립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서울: 명지대학교 디지털아카이빙연구소.
- 박상애 (2014). 미술관 아카이브와 교육. 박물관교육연구, 11, 11-30.
- 서수옥 (2006). 우리나라 미술관 자료실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설문원, 백지원, 송치호 (2012). 국립현대미술관 아카이브 관리시스템의 시각예술기록자료 분류체계 및 메타데이터 개발방향성 정립 최종보고서. 서울: [발행처불명].
- 양소현 (2018). 시각예술기록의 활용과 저작권 문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 염효경 (2014). 전문도서관으로서의 미술관 자료실 활성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유순남 (1996). 미술정보의 전자서비스 시스템 설계 구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정보처리학과. 10.23185/skku.000000005389.11040.0010419
- 이경수 (2004). 미술 자료 전산화에 있어서의 표준화: 북미지역 미술기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 이규상 (2001). 미술·사진도서 출판의 현황과 과제. 출판연구, 13, 109-120.
- 이정민 (1996). DDC 미술분야의 수정전개 방안에 관한 연구: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도서관학전공.
- 이지은, 김지현 (2015). 미술관 아카이브 기술요소 제안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46, 45-93.
- 이현정 (1995). 미술자료의 이용에 관한 연구: 이용자의 주제배경과 관련하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 전공.
- 이호신 (2018). 미술관 기관아카이브의 기록물 수집과 정리에 관한 사례연구: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자료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4), 1-24. 10.14404/JKSARM.2018.18.4.001
- 정명주 (2006). 아트 아카이브에(Art achives)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과학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정연주 (2003). 미술관 자료실의 커뮤니케이션 매개체로서의 가능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

- 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현대미술경영전공.
- 정혜린 (2009). 미술작품의 기록가치 구현을 위한 기록관리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정혜린, 김익한 (2009). 미술 아카이브의 미술기록관리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20, 151-212.
- 황동열 (1992). 미술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데이터요소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정보학전공.
- 황진현 (2012). 시각예술기록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설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 Allen, N. S. (1996). The role and function of libraries in art museums. *The Bulletin of Japan Art Documentation Society*, 5, 3-19.
- Art Libraries Society of North America (1984). *Current Issues in Fine Arts Collection Development*. Arizona: Art Libraries Society of North America.
- Art Libraries Society of North America [n.d.]. Available: <https://www.arlisna.org/about-the-society>
- Art Libraries Society UK & Ireland [n.d.]. Available: <https://arlis.net/about/history>
- Behrndt, H. (1981). The use and development of art library materials in large and small libraries. *Art Libraries Journal*, 4(6), 7-12.
- Bettley, J. (2001). Collection Development. In Simon Ford ed. *Information Sources in Art, Art History and Design*. München: K · G · Saur.
- Canadian Centre for the Visual Arts (1997). *Library and Archives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Canada: National Gallery of Canada.
- CanLII [n.d.]. Available: <https://www.canlii.org/en/ca/laws/stat/rsc-1985-c-n-12/latest/rsc-1985-c-n-12.html>
- Cleveland Museum of Art (2018, July 25). *Ingalls Library and Museum Archives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Available: <https://www.clevelandart.org/ingalls-library-and-museum-archives-collection-development-policy>
- Cleveland Museum of Art [n.d.]. *Ingalls Library and Museum Archives*. Available: <https://www.clevelandart.org/ingalls-library-and-museum-archives>
- Dole, W. V. (1983). Austerity and the arts: collection development in the 1980s. *Drexel Library Quarterly*, 19(3), 28-37.
- Gakhar, A. P. (1993). Collection development and the acquisition of art materials at the

- Indira Gandhi National Centre for the Arts. *Art Libraries Journal*, 18(2), 4-8.
- Gorman, G. E. & Howes, B. R. (1989). *Collection Development for Libraries*. London: Bowker-Saur.
- Hoffmann, F. W. & Wood, R. J. (2005). *Library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Academic, Public, and Special Libraries*. Lanham, Maryland, Toronto, Oxford: The Scarecrow Press, INC.
- Johnson, P. (1994).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a cunning plan. *Technicalities*, 14(6), 3-6.
- Koot, G.-J. (2001). Museum and Gallery Libraries. In Ford, Simon eds. *Information Sources in Art, Art History and Design*. München: K · G · Saur.
- Lampens, D., De Pourcq, I., & Rogiest, P. (2008). Collection development and management in the art library of the Koninklijk Museum voor Schone Kunsten Antwerpen. *Art Libraries Journal*, 33(3), 12-18.
- National Art Library (2021).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Documentary Material*. Available: <https://www.vam.ac.uk/info/national-art-library>
- National Gallery of Canada (2018). *Library and Archives Policy*. Canada: National Gallery of Canada.
- Phillips, F. (1984). Developing collecting policies for manuscript collections. *The American Archivist*, 47(1), 30-42.
- Pistorius, N. (1984). Drafting and implementing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in academic art libraries. In Art Libraries Society of North America eds. *Current Issues in Fine Arts Collection Development*. Arizona: Art Libraries Society of North America.
- Schimansky, D-D. (1981). A policy for the development of collections in museum art libraries in the United States. *Art Libraries Journal*, 6(4), 35-49.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Art Materials Management Regulations of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No. 226.

Digital Archive Research Center of Myongji University (2012a). *Research for a Strategy for Establishing an Information Center 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 Contemporary Art, Seoul (Separate Volume). Seoul: Digital Archive Research Center of Myongji University.
- Digital Archive Research Center of Myongji University (2012b). Research for a Strategy for Establishing an Information Center 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Final Report). Seoul: Digital Archive Research Center of Myongji University.
- Electronic Government Act. Act No. 19030.
- Hwang, Dong-Ryul (1992). Research on Data Elements for Building an Art Information Database.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 Hwang, Jin-Hyun (2012). A Study on Metadata Design for Visual-Arts Archives Management.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Jeong, Hye-Rin (2009). A Study on a Method to Manage Records to Realize Recording Value of Artworks.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 Jeong, Hye-Rin & Kim, Iek-Han (2009). A study on management of records of art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0, 151-212.
- Jeong, Yeon-Ju (2003). A Study of the Possibility of Art Museum Library as a Medium of Communication.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 Jung, Myung-Ju (2006). A Study on Art Archives.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 Kim, Chul-Hyo (2007). Current status of data management in the visual arts field. In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eds. Forum on systematic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art materials. Seoul: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23-43.
- Kim, Dal-Jin (1999). A Study on Effective Management Method and an Analyzation on Art Information in Art Museums.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 Kim, Dal-Jin (2008). Survey of domestic museum libraries. In The Arts Council of Korea eds. Research on the Current Status and Utilization of Archives in the Field of Visual Arts. Seoul: Korea Arts Council, 12-34.
- Kim, Dal-Jin (2009). Research on the administration of arts information and establishing an institution of arts information center. Form Archives, 1, 55-91.
- Kim, Dal-jin (2012). A current overview on conditions and issues of art archives in Korea and related challenges. Journal of Korean Modern & Contemporary Art History, 24, 241-284.
- Kim, In-Hye (2012).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s art archive

- operation plan. *Journal of Korean Modern & Contemporary Art History*, 24, 301-310.
- Kim, Ki-Hyun (2000). A Study On Introducing Art Archives to Korea.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10.23169/cau.000000000831.11052.0000587
- Kim, Min-Su (2011). A Study on Art Archives Acquisition Policy: Case Study in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 Kim, Yong-beom (1992). The role and status of art museums. *Culture and Arts*, 155. Available: http://www.arko.or.kr/zine/artspaper92_06/index9206.htm.
- Lee, Ho-Sin (2018). A case study on acquisition and arrangement at institutional archives at an art museum: focus on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es Society of Korea*, 18(4), 1-24. 10.14404/JKSARM.2018.18.4.001
- Lee, Hyun-Jung (1995). A Study on the Use of Art Information: In Relation to the Users' Subject Background on the Fine Arts. Master's thesis, Sung Kyun Kwan University.
- Lee, Jeong-Min (1996). A Study on the Modification of DDC Scheme in the Fine Arts: In Case of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Lee, Ji-Eun & Kim, Ji-Hyun (2015). A study on the proposal for the description elements of art museum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6, 45-93.
- Lee, Kyung-Soo (2004). Digitalization Standards for Art: Case Study in North American Art Institution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Lee, Kyu-Sang (2001).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art and photography book publishing. *Publication Research*, 13, 109-120.
- Maeng, Hong-Kyun & Kim, Yeun-Hee (2018). A study on development strategy of visual art archive. *Journal of Digital Art Engineering & Multimedia*, 5(2), 165-174. 10.29056/idaem.2018.12.09
- Museum and Art Gallery Support Act. Act No. 19481.
- National library Act (1953).
-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1999). *Art Museums and Materials*. Gwacheon: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2023). *2022 Annual Report*. Seoul: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Organization. [n.d.]. Available:
<https://www.mmca.go.kr/eng/about/organization.do>
-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Research-Library and Archive. [n.d.].
Available: <https://www.mmca.go.kr/eng/bookArchive/bookArchiveMain.do>
- Park, Sang-Ae (2014). Museum archives and education. *The Journal of Museum Education*,
11, 11-30.
-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ct No. 20309.
- Ro, Moon-Ja (1998). A study on art exhibition catalog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8, 219-262.
- Seol, Moon-won, Baek, Ji-Won, & Song, Chi-Ho (2012). Final Report on Establishing
a Classification System and Metadata Development Direction for Visual Arts Records
in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s Archive Management
System. Seoul: [s.n.].
- Special Materials Management Regulations of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No. 225.
- Suh, Soo-Ok (2006). A Study of Art Museum Libraries: Present Conditions and Future
Development Plans.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Yang, So-Hyun (2018). A Study on Utilization and Copyright Issues of Visual Arts Archives.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Yeom, Hyo-Kyung (2014). A Plan to Use Art Museum Archives as Specialized Libraries.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Yu, Sun-Nam (1996). A Study on the System Design and Development of Digital Service
Process in Art Information. Master's thesis, Sung Kyun Kwan University.
10.23185/skku.000000005389.11040.0010419

